

백곡 김득신 시 비평 연구

허윤진*

차 례

1. 머리말
2. 비평의 객관성에 대한 구조화
3. 문학 창작의 타자성에 대한 통찰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17세기의 개성적인 시인이자 비평가인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의 『종남총지(終南叢志)』 소재 시화 48칙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시 비평을 연구한 것이다.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은 주제적으로 크게 비평론과 창작론으로 나누어진다. 비평론에서는 비평이 외부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는 작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야 함이 드러난다. 그러한 비평의 객관성은 상이한 비평적 입장들에 대한 비평가의 변증법적 사유 과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창작론에서는 문학의 타자성이 중시된다. 문학은 창작자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창작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천기(天機)나 조화(造化) 같은 타자적인 작인의 작용이 필요하며, 또는 창작자 스스로의 도저한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반복적인 독서는 창작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앞을 갱신해 가는 과정이다. 독서는 인간이 자신과 세계의 문제 상황을 돌파하여 죽음의 상태를 초월할 수 있는 과정이자 방법론이다.

핵심어 : 김득신, 『종남총지』, 비평론, 창작론, 객관성, 타자성

1. 머리말

17세기의 개성적인 시인이자 비평가인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의 삶은 그의 문학적 명망과는 달리 그다지 순탄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어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릴 적 두질(痘疾)을 심하게 앓고 나서 노둔해진 탓으로 사대부 집안의 자제로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10세가 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십구사략(十九史畧)』의 첫머리에 있는 <천황(天皇)> 한 장(章) 스물여섯 자를 사흘 동안 공부하고도 구두를 떼지 못했다. 백곡에게는 이처럼 체력과 지력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학문과 문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였다. 백곡은 조선 중기 4대 문장가인 ‘월상계택(月象谿澤)’ 중 한 사람인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에게 시문(詩文)으로 당대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59세가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등과(登科) 전후로 여러 직위를 제수 받아 환로(宦路)에 나아갔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백곡 김득신은 사대부로서 다소 불우했던 삶으로 인해 좌절하는 대신, 명망이나 지위와 같은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문학작품을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의 시 비평은 그의 문집인 『백곡집(柏谷集)』에 소재한 산문 <贈龜谷詩序>(冊5)와 <評湖蘇芝石詩說>(冊6)²⁾, 그리고 『종남총지(終南叢志)』³⁾에 소재한 48칙의 시화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문집

1) 이 단락에서 간단히 요약한 백곡 김득신의 전기(傳記)적 정보는 모두 한국문집총간에 영인된 총 7책의 『백곡집(柏谷集)』 필사본에 있는 묘갈명과 행장 초고를 참고한 것이다. 李玄錫,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安豐君金公墓碣銘并序>, 金得臣, 『柏谷集』, 한국문집총간 104, 민족문화추진회, 1990, 226-227쪽; <行狀草>, 위의 책, 227-230쪽.

여기에서 백곡의 행장 초고는 그의 손자 향렬에서 정리된 것으로, 그 작성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목차에는 행장 초고의 작성자가 ‘金行中’으로 되어 있는데, 행장의 내용을 보면 백곡의 손자 향렬에서는 돌림자로 ‘可’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곡의 손자 중에 ‘金行中’이라는 이름은 있을 수가 없다. 이는 행장 초고 말미에 있는 부기(附記) 중 “公孫行中”에 대한 착오로 보인다. “此是公孫行中所撰, 而無名諱, 不知出於誰手. 然草本不在他, 而獨吾家有之, 則爲石村公所撰也無疑焉.” <行狀草>, 위의 책, 230쪽.

2) <贈龜谷詩序>(冊5)는 선조 대의 여항시인인 구곡(龜谷) 최기남(崔起南, 1586-?)에 관한 비평이며, <評湖蘇芝石詩說>(冊6)은 조선 중기의 명문장가들인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1491-1570),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지천(芝川) 황정옥(黃廷或, 1532-1607), 석주(石洲) 권필(權鞮, 1569-1612)에 관한 비평이다.

3) 『종남총지』의 전체 텍스트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종남총지』는 홍만중이 편찬한 『시화총림(詩話叢林)』 동권에 총 48칙, 임엄(任廉, 1778-1848)의 『양파담원(陽葩談苑)』에 동일한 48칙이 전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 더 앞선 홍만중의 『시화총림』본을 대상으로 한다. 또, 『백곡집』 필사본을 보면 『終南叢志』라는 제목 하에 총 10편의 산문이 집수되어 있다. 그중에서 7편은 현전하는 『종남총지』에 수록된 시화 1, 20, 21, 41, 48칙의 전문(全文)과 37, 43칙의 발췌문이다. 나머지 3편은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1628-1692), 미상의 필자, 홍만중(洪萬鍾,

소재의 비평 산문에 비해 충분히 내재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종남총지』의 시화를 대상으로 하여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범주화 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비평론과 창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비평론의 측면에서는 작품에 대한 비평 능력의 뜻으로 백곡이 사용한 용어인 ‘구안(具眼)’과 ‘구이(具耳)’를 강조하는 논의들이 있다.⁴⁾ 그리고 창작론의 측면에서는 백곡이 시 비평에서 논한 창작의 작인인 ‘천기(天機)’나 ‘묘오(妙悟)’에 대한 논의들이 압도적으로 많다.⁵⁾ ‘묘오(妙悟)’는 송(宋)의 엄우(嚴羽)가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선도(禪道)와 시도(詩道)를 비교하면서 쓴 개념⁶⁾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엄우의 영향이 다소 과도하게 강조되어, 백곡 시 비평의 개성적인 측면⁷⁾이 다소 간과된 면이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종남총지』의 시화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에서 비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이 어떻게

1643-1725)이 각각 백곡에 관해서 쓴 글의 일부이다. 金得臣, 『柏谷集』, 앞의 책, 239-240쪽 참조.

- 4) 안대회, 『조선후기시화사』, 소명출판, 2000, 74-75쪽; 송중업, 『終南叢志』의 시화비평 연구, 동아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57-58쪽; 박수천, 『終南叢志』의 비평양상, 『한국한시연구』 15집, 한국한시학회, 2007, 405-406쪽. 이 중에서 안대회의 연구는 조선 전기·중기·후기의 문학사/비평 담론을 두루 논하면서 백곡 김득신의 『종남총지』를 맥락화 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 5) 정대립, 「김득신의 『종남총지』와 묘오의 시 세계, 『조선후기 시와 시학의 현장』, 태학사, 2014, 289-298쪽(『우전선호열선생고회기념논총』, 창작과비평사, 1983의 논문을 재수록); 이재복,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37-45쪽; 송중업, 위의 논문, 46-47쪽, 68-73쪽; 신병식, 「김득신의 시의식과 비평관 - 『終南叢志』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2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3, 90-97쪽; 김성기, 「金得臣의 시 인식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집, 한국한시학회, 2006, 322-327쪽; 김광수,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62-79쪽; 신병식, 『백곡 김득신의 문학론과 문학세계』, 박문사, 2010, 71-94쪽.
- 6) “大抵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 嚴羽, 『滄浪詩話』, 何文煥 輯, 『歷代詩話』 下, 中華書局, 2004(2版), 686쪽. 백곡의 시화에서뿐만 아니라 엄우의 『창랑시화』에서도 묘오(妙悟)는 시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구성 상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묘오(妙悟) 개념이 두루 과도하게 강조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7) 다음의 논문은 『종남총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백곡 김득신 시 비평의 평어(評語)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현주, 『종남총지』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37-50쪽.

반복적으로 구조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에서 ‘타자성’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문학 창작의 핵심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비평의 객관성에 대한 구조화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은 대상이 되는 시 작품에 대한 저자 자신의 직접적인 비평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작품에 대한 다른 문인들의 비평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간략히 논평하는 일종의 메타비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이 그의 시 비평을 문학사의 단순한 일화로 오인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평에 대한 비평은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한 저자 자신의 기본적인 감식안과 이해는 물론, 타인의 비평에 대한 논리적 통찰이 없이는, 자칫 인용을 빙자한 표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해한 비평방식이다. 백곡 김득신의 경우에는 메타비평이 어떤 하나의 대상 작품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대화하는 양상을 구조화 하는 비평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평적 사유의 변증법적 속성과 객관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중남총지』에 소재한 백곡의 시 비평작품들은 대체로 시 작품,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는 비평적 주체,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비평적 주체, 그리고 이 모든 작품과 비평을 종합해서 보는 비평가 자신을 작인으로 가진다. 다음의 비평문에는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의 시, 그리고 그에 관한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과 허균(許筠, 1569-1618)의 비평, 그리고 비평가 자신이 작품과 기존의 비평에 대해 가진 견해가 잘 종합되어 있다.

문장에서 마음을 많이 쓴 곳은 절로 기묘하고 조화로우미 있어 진실로 쉽게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을 형상하고 경치를 묘사하는 말에 이르러서는 마치 바람에 흐르는 구름이 모양을 바꾸는 것과 같이 아침과 저녁에 같지가 않다. 스스로 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면 그 경치를 밝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 이는 성인만이 성

스러움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정사룡의 <후대야좌(後臺夜坐)> 시의 한 연

山木俱鳴風乍起 산의 나무 함께 우니 바람이 설핏 일고
江聲忽厲月孤懸 강물 소리 홀연 거세지는데 달이 외로이 걸려있네

를 평하여, “달이 외로이 걸려있네 [月孤懸]”와 “강물 소리 홀연 거세지는데[江聲忽厲]”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허균이 지은 『국조시산(國朝詩刪)』 가운데 이 시를 뽑아놓고 평하기를, “이 분의 이 연은 마땅히 이 책에서 제일이다”라고 했다. 허균은 비평안(批評眼)을 갖춘 사람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니,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이수광이 이처럼 폄하하는 논의를 한 것은 자세히 궁구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청풍(淸風)을 지나다가 황강역(黃江驛)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개여울 소리가 매우 세차게 들려왔다.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떠 있었다. 그래서 호음의 “강물 소리 홀연 거세지는데 달이 외로이 걸려있네”라는 시구를 생각하면서 한 번 읊고 세 번을 찬탄하였다. 그리고는 옛사람들의 경치 묘사가 팝진하여, 그 시의 가치는 실제의 풍경을 대하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다.⁸⁾

이 비평문의 대상작품은 호음 정사룡의 문집인 『호음잡고(湖陰雜稿)』 卷3에 수록되어 있는 <후대야좌(後臺夜坐)>이다.⁹⁾ 백곡은 먼저 이수광의 『지봉유설』

8) “文章用意處，自有奇妙造化，誠未易論也。至其狀物寫景之語，則如風雲變態，朝暮無常。苟非自到，其境不能明悟，是猶聖人能知聖也。李芝峯所著『類說』評鄭湖陰「後臺夜坐」詩一聯：‘山木俱鳴風乍起，江聲忽厲月孤懸，以‘月孤懸’三字與‘江聲忽厲’不相屬云。許筠所撰『國朝時刪』中選入此詩而評之曰：‘此老此聯當壓此卷’許筠以藻鑑名世，則宜有所深解。芝峯之有此貶論者，豈未當細究而然耶？余曾過淸風抵宿黃江驛，夜半聞灘聲甚駛，開戶視之，落月孤懸矣，因憶湖陰江聲忽厲月孤懸之句，一咏三歎，始覺古人寫景逼真，其詩儻對景益高。” 金得臣, 『終南叢志』, 제5칙, 洪萬鍾,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61-362쪽; 洪萬鍾, 허균수·윤호진 역주, 『譯註 詩話叢林』 上·下, 까치, 1993, 188-189쪽. 이하에서 인용하는 김득신의 『종남총지』 시화의 원문은 모두 위의 홍만종의 『시화총림』 영인본에, 번역문은 위의 역주본에 의거한 것이다. 이하에서 『종남총지』를 인용할 때는 혼동을 막기 위해 원문과 번역문의 서지사항을 계속해서 표시하기로 한다. 번역문은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9) 이 작품은 1제 2수의 칠언율시이다. 제1수는 다음과 같다. “仲冬良夜仍南至，江月盈規看更完。銀闕湧空收薄霧，金波流彩閃驚湍。斗邊瞻望真傷遠，天末飄零亦足嘆。坐到三更窮不寐，訓狐三叫髮衝冠。” 제2수는 다음과 같다. “煙沙浩浩望無邊，千仞臺臨不測淵。山木俱鳴風乍起，江聲忽厲

卷9 <문장부2(文章部二)> <시평(詩評)>에 있는 평을 인용한다. 그리고 허균이 편찬한 시선집인 『국조시산』에 있는 평을 이어서 인용한다. 동일한 작품에 대한 두 비평가의 상반된 평가가 대비되어 있다. 백곡은 문학사적인 영향력이 있는 선대(先代)의 비평가들이 가졌던 견해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대신, 시의 가치와 기존 비평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탐구해 본다.

여기에서 시 한 구절이 불러일으킨 비평적 난국을 백곡이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적 표현과 현실이 조응하는 순간을 경험한 덕분이었다. 시의 표현만 놓고 본다면 외로운 달이 주는 고적한 분위기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이 주는 다소 요란한 느낌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아정(雅正)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백곡 자신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위가 조용해진 한밤중에는 모든 존재의 자취가 드물어 조용하므로 어디선가 흘러가는 물소리가 적막을 깨고 세차게 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忽厲’라는 표현에는 상투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한밤 풍경에 대한 묘사의 사실성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평은 작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평가하는 선택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백곡은 호음 정사룡의 시에 대해서 허균과 같은 입장을 취해,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봉 이수광의 반대 견해는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비평가들이 가진 상이한 견해는 백곡의 비평적 사유에 있어서 일종의 명제(正)와 반(反)명제로 가정되었다. ‘문학적 표현의 필진성’이라는 나름의 가치평가 기준을 가지고 최종의 견해[습]를 이끌어내는 백곡 김득신의 변증법적 사유과정에서, 지봉 이수광의 견해는 일종의 반(反)명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비평의 객관성은 타인들의 견해를 통해 나의 견해가 정당한 것인지 반성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용할 시화는 «시 - 비평적 주체 1 - 비평적 주체 2 - 비평가 자신»의 비평 구조를 중층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앞선 시화에서는 이 비평 구조가 자국 문학사 내에 적용되었다면, 다음의 시화에서는 자국 문학사/동아시아

月孤懸。平生牢落知誰藉。投老老邁只自憐。擬着宮袍放舟去。騎鯨人遠問高天。” 여기에서 이수광, 허균, 김득신이 비평하고 있는 부분은 제2수의 3, 4구이다.

고전문학사에 걸쳐 이중으로 적용된다.

유생 우탁(禹鐸)은 시를 잘 지었다.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일찍이 강가 정자에 우탁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 어촌에는 낙조가 깔렸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노수신이 시를 지으려고 속으로 읊조리고 있는데, 우탁이 붓을 끌어가 먼저 절구 한 수를 지었다.

曳照橋鳥背	돛 위 까마귀 등에 비친 낙조는
收紅前釣岸	고기 낚는 언덕 앞에서 붉은 빛을 거두고
半江金柱影	강 가운데 금빛 기둥 그림자는
斜入白鷗天	비스듬히 흰 갈매기 나는 하늘로 들어가네.

노수신이 아주 칭찬을 하고는, “사가(四佳; 서거정)처럼 넉넉한 사람한테도 이런 뛰어난 말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동원(東園) 김귀영(金貴榮)이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저 학생은 시를 잘 짓는다는 소문을 못 들었는데, 어찌 그리도 지나치게 인정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노수신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름과 지위를 가지고 시를 논하는가? 맹호연(孟浩然)의

微雲淡河漢	얇은 구름 은하수에 맑고
疏雨滴梧桐	성긴 비는 오동나무에 떨어지네.

라는 시는 시 짓는 사람들이 높이 받드는 것이네. 그 맹호연 역시 학생이 아니었던가?”라고 하였다. 김귀영이 무안하여 부끄러운 기색이 있었다. 내가 생각건대, 속된 사람들은 시를 보는 눈[具眼]도 없고, 시를 듣는 귀[具耳]도 없어, 오직 때의 선후와 사람의 귀천으로 시의 경중을 따진다. 가령 이백과 두보를 다시 살린다 해도 그들이 하루에 속한다면, 또한 반드시 경멸하고 모욕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니, 세상일을 개탄할 만하다.¹⁰⁾

10) “儒生禹鐸工於詩。蘇齋盧守愼嘗在江亭與禹同坐。時漁村落照，真奇觀也。蘇齋欲賦詩方沉吟，禹援筆先書一絕曰：‘曳照橋鳥背，收紅前釣岸。半江金柱影，斜入白鷗天。’蘇齋極稱善曰：‘雖瞻如四佳無此警語。’東園金貴榮¹⁾適在座曰：‘彼學生，未聞有能詩聲，何其過許?’蘇齋曰：‘君以名位論詩耶? 孟浩然之『微雲淡河漢，疎雨滴梧桐』爲詩家上乘，彼浩然亦非學生乎?’ 金，愼然，有慚色。余謂

위의 시화는 우탁(禹鐸, 1527-?)이라는 선비의 시 한 편을 중심으로 한 비평문이다. 우탁에 대해서나, 이 작품에 대해서는, 백곡의 『중남총지』 외에 전하는 문헌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위에 인용된 시는 1구가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을 하여 2구의 술어부와 이어지고, 3구가 역시 명사구로서 4구의 술어부와 이어지는 독특한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서서히 아스라해지는 어촌의 낙조가 언어문법적으로도 아름답게 구현된 작품이다. 어촌의 낙조를 마치 그물처럼 거두어지는데[收] 깃, 돛대의 기둥[柱]처럼 수직적인 것으로 표현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이 글에 등장하는 비평적 주체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조선시단에서 시로 명망을 떨친 바 있는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며, 다른 한 사람은 동원(東園) 김귀영(金貴榮, 1520-1593)이다. 소재는 스스로 뛰어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세하지 못한 선비의 시를 낮춰보는 대신, 작품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심지어 조선 중기의 뛰어난 문인인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과 우탁을 견주기까지 한다. 동원은 여기에서 우탁의 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의 비평준거는 다름 아닌 기존의 유명세이다. 이 부분까지는 «우탁의 시 - 소재 노수신 - 동원 김귀영»을 중심으로 한 담론이 자국문학사의 맥락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재는 이 지점에서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사례를 들어, 이름과 지위[名位]가 비평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소재는 당(唐)의 시인 맹호연(孟浩然, 689-740)의 작품과 그 수용양상을 예로 들어, 비평의 근거는 작품성 자체여야 함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자국문학사에 적용되었던 비평의 구조는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에 투사되어, «맹호연의 시 - 그 가치를 아는 자 -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의 구조로 나타난다. 그 시를 창작했을 때의 맹호연도 출세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맹호연의 상황과 우탁의 상황은 유추적인 관계인 것이다. 맹호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명성과 지위로 시를 평

俗人無具眼又無具耳，唯以時之先後、人之貴賤，輕重之。雖使李、杜再生，若沈下流亦必有輕侮者，世道可慨也。” 金得臣，『終南叢志』，제6칙，洪萬鍾，『詩話叢林』，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362쪽；洪萬鍾，허권수·윤호진 역주，『譯註 詩話叢林』上·下，까지，1993，189-190쪽.

가할 수 없다고 본 소재의 비평관은 상반된 견해를 가졌던 동원을 감화시킨다. 『중남총지』에서 시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안목이 있는 자의 경우는 ‘붓을 내려놓는[閣筆]’ 등의 행위로, 안목이 없었던 자의 경우는 ‘부끄러워’ 하는 정서적 상태로 표상된다. 이 시화에서도 시의 가치를 알아볼 줄 몰랐던 김귀영의 ‘부끄러움’은 그의 변화된 상태를 가리킨다.

백곡은 글의 말미에서 소재의 견해를 이어받아, 시를 알아볼 줄 모르는 이들은 시간적인 선후관계나 지위의 고하(高下)로 시를 평가한다고 주장한다.¹¹⁾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예를 들어 이백과 두보처럼 이미 작품의 뛰어난 성취를 입증한 시인들조차도 신분이 미천하면 온당하게 평가받기는커녕 모욕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백곡의 이 시화에서 자국문학사와 동아시아 고전문학사는 비평의 중층구조를 통해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있다. 자국문학사는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열등하거나 미소(微少)한 부분으로 폄하되지 않는다.¹²⁾ 역으로 동아시아 고전문학사는 무조건적으로 이상화 되지 않는다. 자국문학사와 동아시아 고전문학사는 객관적인 비평 없이는 온당하게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행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백곡 시 비평에서는 자국 문학사와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이중

11)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에서 시인의 외적이고 현상적인 조건에 함몰되어 그가 지은 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다. 예컨대 『중남총지』 시화의 제1칙과 제2칙에서 각각 불품없는 선비 이효칙(李孝則), 외모가 추했던 용재(容齋) 이행(李衍)과 같은 인물들이 시를 보여주지 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장면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이는 문학에서 외적인 평가 요소와 내적인 본질의 불일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우의(寓意)로 읽을 수 있다. 金得臣, 『終南叢志』, 제1칙, 2칙, 洪萬鍾,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59-360쪽 참조.

12) 『중남총지』의 제11칙에서는 중국의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한강에서 노닐며 지은 시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대신 제술관 동고(東阜) 최립(崔嶺)이 지은 시구가 소개된다. 최립은 서울을 ‘왕경(王京)’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원집사였던 서경(西瑯) 유근(柳根)이 관습적인 표현인 ‘장안(長安)’으로 고쳤다. 예상과 달리 주지번은 ‘長安’ 대신 ‘王京’이라는 말이 그 시에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서도 자국문학사의 특수성과 개성을 존중하려는 백곡의 시각이 드러난다. 제12칙은 개성의 박연폭포에 대해 유생들이 시를 쓰면서 조선의 지리적인 특수성과 이백의 고전적인 시 표현을 결합시키는 문제에 대한 시화이다. 이 부분 역시 조선의 공간과 문학사의 특수성/보편성에 대한 백곡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심화된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金得臣, 『終南叢志』, 제11칙, 12칙, 洪萬鍾,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64-365쪽 참조.

맥락 안에서, 타인들의 비평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자신의 비평을 객관화 하는 비평가의 태도가 잘 나타난다.

『중남총지』를 통틀어서 백곡이 시 비평의 모델로 반복해서 참고하는 대표적인 비평가(知詩者)는 바로 택당(澤堂) 이식(李植)이다. 『중남총지』에 소재한 총 48칙의 시화에서 택당 이식은 제18칙, 20칙, 28칙, 31칙, 44칙에서 인용된다. 인용의 빈도수가 반드시 중요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백곡 김득신이 택당 이식의 비평에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받았음은 확인할 수 있다. 택당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다음의 시화를 통해 백곡이 지향하는 비평의 객관성은 궁극적으로는 비평가의 자기반성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이 일찍이 친구 집에서 택당(澤堂) 이식(李植)을 만나 술을 마시고 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은

滿載人間酒	세상의 술을 가득 싣고,
懸帆大海中	돛을 높이 달고 바다로 간다.
長風九萬里	큰 바람 구만리에 불어,
眞到廣寒宮	곧바로 광한궁에 이르고자.

라는 시를 외우며, 장엄한 시라고 생각했다. 택당이 말하기를, “그런 시는 어린이들의 말이지, 나이 든 선비들이 하는 말이 아니네”라고 하니, 백주는 무안해했다. 그때 마침 그 주인 집의 화분에 심은 국화가 아주 활짝 피어 있었다. 백주가 곧바로 이렇게 읊었다.

風雨到君家	풍우 속에 그대의 집에 이르니
雨晴山日斜	비는 개고 서산의 해는 저물었네.
今年秋色早	올해는 가을빛이 이르니
八月已黃花	팔월에 벌써 국화가 피었네.

택당이 두세 번 읊어보고는 말하기를, “천장(天章)이 과연 나를 일깨우는도다”라고 하였다. 천장은 백주의 자(字)이다.¹³⁾

이 시화에는 두 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 1595-1645)과 택당(澤堂) 이식(李植)이다. 백주의 시는 두 편이 인용되어 있다. 첫 번째 시는 『백주집(白洲集)』 卷1에 소재한 <배위에서 취해서 쓰다[舟上醉書]>이고, 두 번째 시는 마찬가지로 卷1에 소재한 <자진(子珍) 김남중(金南重)의 집에서 불러 적대[金子珍南重第口號]>이다.

이 비평문은 ‘각성과 성숙’이라는 시간적인 맥락 속에서 중층 구조를 가진다. 첫 번째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주 이명한의 시1 - 백주 이명한 - 택당 이식»이 작품과 비평적 주체들로 등장한다. 백주는 자신의 시가 장엄하다고 자평하나, 택당은 그 시가 성숙하지 못하고 다소 유치함을 지적한다. 소재 노수신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던 동원 김귀영처럼, 택당의 평을 들은 백주는 무안해 한다. 백주의 무안함은 동원의 부끄러움과 동귀의 것이며, 변화의 표징이다.

택당의 비평을 통해 자신의 시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유할 기회를 얻은 백주는 이어서 새로운 시를 짓는다. 실제로 첫 번째 시는 호방한 기상은 있지만 백주가 자신했던 성숙한 풍모는 시의 표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택당의 평을 듣고 새로 쓴 백주의 두 번째 시는 하련(下聯)에서 시인의 재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상련(上聯)은 경물에 대한 충실한 묘사이다. 하련은 경물에 대한 충실한 묘사인 동시에, ‘이르르게 발현된 시적 기상’, 즉 시인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이 두 번째 시에 관해서는 독특한 비평의 구조가 발생한다. 그것은 편의상 기호화 하자면 «백주 이명한의 시2 - 택당 이식1 - 택당 이식2»의 구조이다. 백주 이명한의 새로운 시를 감상하고 나서 택당 이식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자신의 앞선 비평과 상반된 평을 내놓는다. 앞서 인용했던 두 편의 시화에서와 달리, 이 시화에서는 비평가가 타인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변증법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신 비평가는 한 저자에 대해 작품에 따라 상반된 입장

13) “白洲李明漢嘗於友人家逢澤堂。飲酒談詩，誦其所作‘滿載人間酒，懸帆大海中。長風九萬里，真到廣寒宮’之詩而爲壯語。澤堂曰：‘此乃兒曹語，老儒所不道’。白洲，愴然。時主家盆菊盛開，白洲卽吟曰：‘風雨到君家，雨晴山日斜。今年秋色早，八月已黃花。’澤堂吟咏數三曰：‘天章果起余矣。’天章，卽白洲字也。” 金得臣，『終南叢志』，제18칙, 洪萬鍾，『詩話叢林』，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69쪽; 洪萬鍾, 허권수·윤호진 역주, 『譯註 詩話叢林』 上·下, 까치, 1993, 199쪽.

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한다.

이러한 자기반성적인 객관화는 비평에 있어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다. 백곡은 비평가가 자신의 비평에 대해 반성함으로써 그것을 객관화하는 과정을 택당 이식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의 시화에서 작품에 대한 택당 이식의 견해를 평가, 종합하는 존재로서 백곡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택당의 자기반성적이며 객관적인 비평이 백곡 자신의 비평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논평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백곡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비평 속에 도입함으로써 비평이 서로 다른 논리들이 충돌하고 대화하는 장(場)임을 보여준다. 작품에 대한 타당한 가치평가와 타당하지 못한 평가는 한 쪽이 이기고 지는 정치적인 투쟁과는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논변이 있고, 그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 3의 주체로서 비평가가 세워질 때, 비평에는 변증법적인 과정이 생겨난다. 그 과정은 때로는 자국문학사의 전통 안에서, 때로는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평가 자신 안에서 자기반성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중남총지』에서 재구해 본 객관적인 비평은, 인간으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타자와 대화하며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문학 창작의 타자성에 대한 통찰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은 이제까지 주로 창작론의 견지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논의가 ‘천기(天機)’, ‘묘오(妙悟)’, ‘조화(造化)’와 같은 몇몇 개념에 집중되면서, 그의 창작론이 지닌 철학적 특성은 충분히 서술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장에서는 창작론의 견지에서 백곡 김득신이 어떻게 문학 창작의 타자성을 중시하고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무릇 시라는 것은 천기(天機)에서 얻어 조화의 공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이러한 것은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다. 그 다음이 당(唐)을 배우거나

송(宋)을 배워 각기 그 체(體)를 얻는 것인데, 모두 취할 만한 것이 있다. 요즈음에 이르러서 시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서너 사람 없는 것이 아니지만, 체격(體格)의 고하(高下)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가(詩家)의 의취(意趣)를 얻은 사람조차 아주 적으니, 어느 겨를에 당에 가깝다, 송에 가깝다 논하겠는가? 세상에 전하는 시에 이런 것이 있다.

我生後彭祖	나는 팽조보다 뒤에까지 살아 있으니
彭祖不如余	팽조도 나만 못하다네.
蜉蝣出我後	하루살이가 내 뒤에 태어난다면
我生猶不如	나의 삶도 하루살이만 못한 것.
往古必羨來	지나간 날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되니
短方有餘此	오는 것은 짧을지라도 남은 것이 있네.

이 시는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말의 이치가 구비되어 무한한 맛이 담겨 있다. 당송의 시 사이에 있더라도 손색이 없으니,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 고서야 어찌 이 같은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¹⁴⁾

위의 시화에서 백곡이 생각하는 창작의 위계는 가장 뛰어난 것이 천기(天機)를 얻어 조화의 공(功)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이 당송시의 체(體)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이 시를 짓는 사람의 생각과 지향(意趣)을 얻는 것이다. 백곡의 기준에서 당대의 작품들은 맨 마지막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시인의 생각과 지향조차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당풍(唐風)인가, 혹은 송풍(宋風)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백곡의 관점에서 창작에서의 가장 뛰어난 성취는 시인 자신에게서 비롯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자연스러운 이치(天機)에서부터 촉발된 것이어야

14) “凡詩得於天機，自運造化之功者爲工，此則世不多有。其次，學唐學宋者各得其體，則俱有可取。至於近世，不無數三以詩稱者，而無論體格之高下，能得詩家意趣者，絕少，奚暇更論唐與宋之近不近乎？世傳一詩曰：‘我生後彭祖，彭祖不如余。蜉蝣出我後，我生猶不如。往古必羨來，短方有餘此。’未知誰氏之作，而辭理俱到，有無限趣味。雖在唐宋之間而若，非自運造化者安能此？”金得臣，『終南叢志』，제30칙，洪萬鍾，『詩話叢林』，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376쪽；洪萬鍾，허권수·윤호진 역주，『譯註 詩話叢林』上·下，가지，1993，208-209쪽.

한다. 즉, 창작의 시원(始原)이 시인 자신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시에는 창조주인 조화옹(造化翁)의 일이 스스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적 타자의 공업(功業)이 요청되는 것이다. 요컨대 백곡의 창작론에서 시는 세계의 조화로운 질서와 그것을 주재하는 신적 타자의 합력(合力)에 의해 완성될 때 가장 훌륭한 것이 된다. 문학은 타자성에 의해서만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이질적인 타자는 바로 죽음이다. 즉, 삶의 유한성은 가장 극단적인 타자성이다. 위에 인용된 시를 백곡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삶의 유한성 문제가 매우 명징한 표현으로 잘 형상화되어있기 때문이다. 800년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彭祖)와 시인 자신, 몇 십 년을 사는 시인 자신과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순차적으로 대비된다. 수명이 길다 해도 이미 ‘살아진’ 삶은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800년을 산 팽조를 부러워하고 하루 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를 불쌍히 여기게 마련이지만, 유한성의 문제를 간파한 시인의 시선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기대는 무미러스하게 역전된다.

이처럼 말의 이치가 타당한 것은 이 시가 모든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삶의 문제를 예각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간 삶의 타자적 문제를 제기한 이 시는 따라서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자’의 수준으로 격상될 수가 있는 것이다.

백곡이 상찬하는 ‘천기와 조화’의 시란 결국 인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자성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자성의 도래는 창작의 주체가 그저 기다림으로써만 이를 수 있는 일인가? 이 지점에서 바로 백곡 김득신 시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독서’의 문제가 부상한다.

백곡 김득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독서는 백곡이 자신의 노둔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독서는 백곡의 창작론에 있어 문학의 타자성을 능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장의 비평론에서 타자의 견해를 참조함으로써 내 자신의 견해를 객관화하고 심화할 수 있었듯이, 타자의 작품은 내 자신의 작품을 객관화하고

심화할 수 있게 해준다. 백곡의 시 비평에서 독서하지 않는 창작 주체들은 결국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통신사의 1655년 제 6차 을미사행 당시 문재(文才)로 한일 양국에서 높이 평가받은 바 있는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이다.

운경(雲卿) 남용익(南龍翼)이 일찍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왜인(倭人)이 닭 그림을 가져와서 시를 구하므로, 남용익이 시 한 수를 지어주었다.

咫尺扶桑曉	부상의 새벽이 지척인데,
胡爲獨不鳴	어찌 홀로 울지 아니하는고?
恐驚孤客夢	외로운 나그네의 꿈을 깨울까봐 지어하여
應絕五更聲	무단히 오경(五更)의 울음소리 끊었네

남용익은 항상 아주 좋은 시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끝구의 “끊었네[應切]”는 멋없이 바로 말한 것이니, 시어가 비속한 것이 흠이다. 이지백은 어려서 남용익과 같이 공부했는데, 그는 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남용익을 만나 묻기를, “그대의 시는 지금 몇 수나 되는가?”라고 하니, 남용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마도 천 수는 넘을 걸”하였다. 이지백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은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대개 그가 읽은 것은 적고 지은 것이 많은 것을 기롱한 것이다. 남용익이 그 말을 듣고는 무안해 했다. 남용익과 김수항은 재주 있는 것으로 나란히 이름이 났는데 신속하게 짓는 데에는 사람들이 남용익이 낫다고 했다.¹⁵⁾

위의 시화에 인용된 시는 남용익의 사행록인 『부상록(扶桑錄)』 중 <부상일록(扶桑日錄)> 을미년(1655년) 10월 30일조(條)에 보인다. 일본의 승려 중달(中達)의 화계축(畫鷄軸)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화는 백곡의 다른 시화들과 마

15) “南雲卿龍翼嘗奉使，日本倭人以畫鷄一幅求詩，南題贈一絕云：‘咫尺扶桑曉，胡爲獨不鳴？恐驚孤客夢，應絕五更聲。’南常以佳作自矜，而但未句‘應絕’二字直說，無風韻，鄙俗，可欠。李知白少與南同榻做工，即能文者也。嘗遇南問曰：‘公詩今到幾首耶？’答曰：‘當過千首矣。’李曰：‘然則無亦已至消朽耶？’蓋譏其所讀少而所賦多也。南聞之，憮然。南與金久之壽恒才華齊名，而應卒敏速，人以南爲優。” 金得臣，『終南叢志』，계33칙, 洪萬鍾,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77-378쪽; 洪萬鍾, 허권수·윤호진 역주, 『譯註 詩話叢林』上·下, 까지, 1993, 211쪽.

찬가지로 «작품 - 비평적 주제 1 - 비평적 주제 2 - 비평가 자신»의 구조를 가진다. 자신의 작품을 자평하고 자신한다는 점에서 태당 이식의 평을 듣기 전의 백주 이명환과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평을 듣고 무안해하는 정서적 변화를 보이는 점도 같다.

그런데 ‘글을 잘하는 사람[能文者]’, 즉 창작의 속성을 잘 아는 인물인 이지백은 창작의 양적 성취 대신 질적 성취를 환기하고 있다. 질적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타인의 작품들을 많이 읽고 적게 씀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창작의 개성은 창작자 자신의 작품 수량이 아닌 그의 독서목록에서 비롯된다. 백곡은 이 시화 말미에서 남용익과 김수항을 비교하면서, 세간에서 운위되는 남용익의 장점은 창작의 신속성, 즉 대량생산의 가능성에 있다고 서술한다. 질적인 성취도와는 무관하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본인들과 기계적으로 시문 창수(詩文唱酬)를 해야 하는 사행길에서 호곡 남용익이 문명(文名)을 얻은 것도 이런 점과 관련될 것이다.

호곡 남용익에 관한 시화에 바로 이어지는 시화 제34칙¹⁶⁾에서 백곡의 당대에 문명(文名)을 얻고 있던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자평(自評)하고 백곡이 동의한 문제 역시 김석주의 독서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비록 그가 작법을 잘 익히고 시구를 조탁하여 꽤 정교한 작품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은 그의 독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김석주의 자평과 백곡의 평을 정리하면, 독서는 창작에 개성적인 창조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창작에 있어 문학의 타자성을 추구하는 가장 능동적인 방식이 독서라는 사실을 백곡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백곡이 그 사실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징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었다. 『중남총지』에 소재한 총 48칙의 시화는 백곡 김득신 자신의 독서기로 마무리된다. 이 글은 적어도 경술년(1670)년, 즉 백곡의 65세 이후에 창작된 작품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문을 쌓은 선비치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고서 성취한 경

16) 金得臣, 『終南叢志』, 제34칙, 洪萬鍾,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378-379쪽 참조

우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문장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역시 손꼽아 헤아릴 수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은 문을 닫아 걸고 책을 읽으면서 밖을 내다보지도 않아, 마루를 내려와 낙엽을 보고는 비로소가 올아 왔다는 것을 알았고,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은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의우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어떤 때에는 변소에 가서 돌아올 줄을 몰랐고, 김일손(金駟孫)은 한유(韓愈)의 글을 천 번 읽었고, 윤결(尹潔)은 『맹자』를 천 번 읽었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은 『논어』와 두보의 시를 이천 번 읽었고, 백호(白湖) 임계(林檉)는 『중용』을 팔백 번 읽었고, 간이(簡易) 최립(崔崧)은 『한서』를 오천 번을 읽었는데, 특히 <항적전(項籍傳)>을 일만 번이나 읽었고, 창주(滄洲) 차운로(車雲輅)는 『주역』을 오백 번이나 읽었고,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은 두보의 시를 수천 번 읽었고,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은 『장자』와 유종원(柳宗元)의 글을 천 번 읽었고,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은 사마천의 『사기』를 수천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나는 천성이 노둔하여 책을 읽은 공이 다른 사람의 두 배나 된다. 『사기』, 『한서』와 한유, 유종원 등의 글을 초록하여 만여 번이나 읽었고, 그중에서도 <백이전(伯夷傳)>을 제일 좋아하여 일억 일만 삼천 번이나 읽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보잘 것 없는 집을 억만재(億萬齋)라고 부른다. 나는 절구 한 수를 지었다.

搜羅漢宋唐秦文	진한당송(秦漢唐宋)의 글을 찾아 벌려놓고
口沫讀過一萬番	침 튀기며 입으로 읽기를 일만 번,
最嗜伯夷奇怪體	그중에서도 백이(伯夷)의 이야기를 좋아하였으니
飄飄逸氣欲凌雲	표연(飄然)히 뛰어난 기개가 구름을 능가함아네.

지난 경술년(1670)에 가뭄이 심하였고, 다음해에는 굶주림과 병이 크게 일어나서 도회지나 시골을 막론하고 시체가 그득 쌓였는데,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올해 죽은 사람과 당신이 책 읽은 횟수와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대개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것을 희롱한 것이다.¹⁷⁾

17) “古今績學之士靡不以勤致之。我東文章鉅公，多讀書者亦可歷數。世傳：金乖崖閉門讀書，不窺外，下堂見落葉，始知秋天成；虛白晝讀夜誦，手不釋卷，如廁或至忘返；金駟孫讀韓文千遍；尹潔讀『孟子』千周；盧蘇齋讀『論語』、杜詩二千回；林白湖讀『中庸』八百遍；崔簡易讀『漢書』五千周，偏讀<項籍傳>至一萬回；車滄洲讀『周易』五百遍；李東岳讀杜詩數千周；柳於于讀『莊子』、柳文千回；東溟鄭君平讀馬『史』數千遍。余性魯鈍，所讀之工倍他人，若馬、『漢』、韓、柳，皆抄讀至萬餘遍，而其中最喜<伯夷傳>，讀至一億一萬三千籌，遂名小窩曰『億萬齋』，仍作一絕曰：『搜羅漢宋唐秦文，

위의 글은 독서론으로 본 자국문학의 소사(小史)라고 부를 만하다. 괴애(乖崖) 김수온(金守溫, 1410-1481)에서부터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 1439-1504), 김일손(金駟孫, 1464-1498), 윤결(尹潔, 1517-1548),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 간이(簡易) 최립(崔崧, 1539-1612), 창주(滄洲) 차운로(車雲輅, 1559-1637),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 1559-1623),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에 이르기까지, 조선 전기·중기의 걸출한 문인들이 대체로 시대 순으로 거명되어 있다. 위 시화의 전반부를 ‘타인의 독서에 대한 독서’라고 부를 수 있겠다.

선인(先人)들이 읽은 타인의 글은 경사자집(經史子集)에 고루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독서를 열심히 한 문인들은 하나의 대상을 거듭 반복해서 읽었다는 사실이다. 백곡이 지향하는 독서란 어떤 것인가가 자국문학사에 대한 기록과 자신에 대한 기록 모두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의 대상을 반복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피상적으로 읽어 독서의 양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의 대상을 여러 번 읽어 독서의 수준을 심화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반복적인 독서는 독서자 스스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앎이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음을 반성할 때에 가능하다. 반복적인 독서는 독서자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앎을 더욱 정확하게 철차탁마해 가는 과정이자 방법론이다. 또 비평이 하나의 대상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백곡 김득신의 반복적인 독서 개념은 그 자체로 비평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독서는 어느 정도로 절실하게 실천해야 하는가? 위 비평의 도입부에서 백곡이 인용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괴애 김수온은 “폐문독서(閉門讀書)”¹⁸⁾에 집중하

口沫讀過一萬番。最嗜伯夷奇怪體，飄飄逸氣欲凌雲。去庚戌值歲旱，八路凶歉，翌年大饑疫，都鄙積屍，不知其數，人有謂余者曰：‘今年死者與君讀書之數，孰多？’云，蓋戲余之多讀也。” 金得臣，『終南叢志』，제48칙，洪萬鍾，『詩話叢林』，아세아문화사 영인본，1973，385-386쪽；洪萬鍾，허권수·윤호진 역주，『譯註 詩話叢林』上·下，까지，1993，221-222쪽.

18)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의 맥락에서 보면 송(宋)의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이 이미 작시(作詩)에서 독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송용준·오테석·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408-409 참조. 시학(詩學)과 독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동아시아 고전문학사와 자국

여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허백당 성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읽었다. 독서란 비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독서자가 처해있는 시공간의 제약마저도 초월하는 행위인 것이다. 위 비평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곡이 책을 읽은 횟수와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나간 사람의 명수를 비교하는 어떤 이의 질문은 자칫 잔인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세태를 모를 정도로 ‘사회적인’ 죽음-소외의 상태 속에서 도저히 폐문독서(閉門讀書) 해야 하는 문학자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철학적인 물음이라고 본다.

비유컨대 독서는 도처에 깔린 죽음으로 인해 상심하는 대신, 타자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자폐(自閉)의 상태를 선택하는 역설적인 존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적인 창작은 바로 이러한 독서, 즉 ‘타자(他者)를 위한 자폐(自閉)의 경험’을 통해 그 깊이를 얻음을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17세기 시단의 가장 개성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백곡 김득신의 『종남총지』 소재 시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시 비평을 연구하였다. 이로써 일차적으로는 기존에 몇 가지 개념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었던 백곡의 시 비평을 보다 내재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구체화 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한국 고전문학사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비평 작품들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한국문학의 비평사와 비평이론을 앞으로 재구성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을 통해서 우리는 비평의 객관성이란 충돌하는 논리들에 대한 비평적 조정과 선택을 통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현실에서 나의 논리와 상반되는 논리는 패배시켜야 할 적과 같이 인식되나, 백곡의 시 비평에서 그것은 나의 입장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논리의 중심축과도 같다. 비평에서는 가장 타자적인 것이 가장 개성적인 것을 구성한다는 독특한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태당 이식의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뛰어난 비평은 비평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평가 스스로 성숙해 가는 비평이다. 자기애적인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자기-부정을 통한 객관화’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백곡은 이러한 객관적 비평을 통해 작품이 저자의 명망이나 지위 같은 부수적이고 외삽적인 요인 대신 작품 자체의 문학적 성취만으로 평가되기를 희구하였다.

백곡 김득신은 이러한 비평관을 바탕으로, 창작 역시 타자성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시 비평에서 문학의 타자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진다. 하나는 천기(天機)와 조화(造化)의 공이 작품에 깃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를 통해 직접 추구하는 것이다. 마치 서구에서의 ‘은총과 자유의 지’의 문제처럼, 문학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타자성과 인간이 ‘스스로 추구’ 할 수 있는 타자성이 있는 것이다. 백곡은 타인의 저작에 대한 자신의 얹이 지닌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독서를 반복하였다. 독서는 인간의 편에서 능동적으로 문학 창작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타자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과정이자 방법론이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에 점차 의존하며 고독한 독서를 통한 타자와의 대면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백곡 김득신의 시 비평은 ‘한밤중의 세찬 물소리’처럼 명징한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得臣, 『終南叢志』, 洪萬鍾 編, 『詩話叢林』 冬,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3.
 金得臣, 『終南叢志』, 任廉 編, 『陽葩談苑』 竹,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45-가494).
 洪萬鍾, 허권수·윤호진 역주, 『譯註 詩話叢林』 上·下, 까치, 1993.
 金得臣, 『柏谷集』, 한국문집총간 104, 민족문화추진회, 1990.

2. 논저

- 김광수,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62-79쪽.
 김성기, 「金得臣의 시 인식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0집, 한국한시학회, 2006, 319-355쪽.
 박수천, 「『終南叢志』의 비평양상」, 『한국한시연구』 15집, 한국한시학회, 2007, 395-423쪽.
 (UCI: G704-000619.2007..15.005)
 송용준·오테석·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408-409쪽.
 송종업, 「『終南叢志』의 시화비평 연구」, 동아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46-73쪽.
 신범식, 「김득신의 시의식과 비평관 - 『終南叢志』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2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3, 81-108쪽.
 신범식, 『백곡 김득신의 문학과 문학세계』, 박문사, 2010, 71-94쪽.
 안대회, 『조선후기시화사』, 소명출판, 2000, 67-78쪽.
 이재복,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37-45쪽.
 이현주, 「『중남총지』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37-50쪽.
 정대림, 「김득신의 『중남총지』와 묘오의 시 세계」, 『조선후기 시와 시학의 현장』, 태학사, 2014, 287-314쪽.
 嚴羽, 「滄浪詩話」, 何文煥 輯, 『歷代詩話』 下, 中華書局, 2004(2版), 686-708쪽.

| Abstract |

Kim Deuk-seen's Poetry Criticism

Hur, Yoon-jin

This thesis investigates Kim Deuk-seen's poetry criticism based on his forty-eight critical works of *The Anecdotes from Jongnam*(終南叢志). His poetry criticism consists of the two tracks: theory of criticism and theory of creation.

Firstly, Kim's theory of criticism supposes that criticism be an objective evaluation of a literary work, regardless of external factors such as fame and social status of the author. The objectivity of criticism can be achieved in the dialect of thought of the critic on conflicting perspectives.

Secondly, Kim's theory of creation emphasizes the alterity of literature; literature cannot be perfected by the potential and thought of the creator himself. To overcome his own limits, the creator needs the operation of agency such as the *Heaven*(天機) or the *Creator*(造化). He also needs the repetitive reading of historical/literary canons to reflect on his own works. The repetition of reading is a process in which the creator accepts his own limits and renews his previous knowledge. Kim defines reading as a process and methodology through which human being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world and himself and transcend even death.

Key words : Kim Deuk-seen(金得臣), *The Anecdotes from Jongnam*(終南叢志), Theory of criticism, Theory of creation, Objectivity, Alterity